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이번엔 조성될까

신안군, 천사대교 개통 접근성 좋아 해양복합레저단지 추진 전남도에 도초도 일대 부지매각 요구...도, 계획 검토후 결정

신안군이 도초도 일대 '사파리(safari) 아일랜드'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2012년 야생동물을 들여와 섬에 사파리를 조성하겠다고 토지 매입 등에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나, 중단한 뒤 애물단지처럼 전락한 부지를 신안군이 구매하겠다고 전남도에 매각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신안군이 수립할 예정인 기본·실시계획을 검토한 뒤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은 최근 전남도에 신안 도초도 사파리 아일랜드 부지를 군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남도가 사업을 접은 지 7년 만에 신안군이 유해동물을 배제한 '가족친화형 작은 사파리 아일랜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전남도에 부지 매각을 요청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신안군 도초도 면 매래리 일대 365필지를 '사파리 아일랜드'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에 나서 68

억원을 들여 254필지(80만2000㎡)를 사들인 바 있다. 하지만 육지 동물원과 차별화, 배로 1시간 가까이 들어가야만 하는 접근성 문제, 유해 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민간 투자자 유치 문제 등이 부상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신안군은 명품길을 만들고 요트 체류를 연계한 사파리를 조성하고 천사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수족공원, 시목해수욕장, 하트해변 등과 연계, 사계절 체류형 해양복합레저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조만간 이를 내용으로 한 '사파리 아일랜드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와 사업 추진을 협의할 방침이다.

전남도 내부에서도 애초 관광단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을 검토해왔다가 중단된 점 등을 들어 신안군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전남도는 현재로서는 신안군의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회 심의 등을 거쳐 부지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17년에도 전남도에 도초도 일대에 5000마리의 동물복지형 한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부지 장기임대(20년)를 건의했으나, 전남도가 이를 거부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역 복합개발사업 용역 자문회의·착수 보고회

광주시는 7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역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철도시설 이전계획 수립용역' 자문회의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역 복합개발 사업은 도심 공동화와 KTX 노선 진입 중단으로 쇠퇴하고 있는 광주역에 역사·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연계된 광주역 복합개발사업 착수에 앞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코레일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추진 중인 광주역 철도차량기지 재배치와 연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현황조사, 해외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토론회를 거쳐 사업 방향이 수립되면 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12월까지 개발 방향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 선정, 2021년 인허가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복합시설 조성하고 함께 광주역 주변 50만㎡ 부지에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문화산업 경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임찬혁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쇠퇴한 광주역을 광주시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광주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지사, 기업 현장 애로 청취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전남 동부지역 기업 경영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지역 기업의 기 살리기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콩과 갖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두부과자를 생산하는 여수의 (주)쿠키아와 강관과 배관 지지물 등을 생산하는 광양의 성화산업(주)의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주)쿠키아는 지난 2018년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생산성 150%, 고용 53%, 매출 72%가 늘어나는 등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스마트공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역점 추진중인 사업이다.

광주시·자치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무단 노출

민원인·청구인 등 인적사항·휴대전화 번호 공개

광주시와 자치구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무단 노출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일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상 주의 4건, 신분상 주의 4건·훈계 25건 등의 조치를 했다.

광주시 정보공개 담당 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4건의 청구인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노출됐다.

5·18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소방 구급활동일지 등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공개하면서 5·18 유공자, 구급 신고인의 신원이 드러났다.

광주시와 동구·서구·북구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2015~2018년 민원 검토 결과 24건을 공개하면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도록 했다. 광주시는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생 72명의 성명, 전화번호, 부서, 직급 등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기념주화 사전 예약하세요

9일~22일 우리·농협은행 접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기념주화(사진) 사전 예약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지정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후 예약금과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예약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www.wooribank.com)이나 농협은행(banking.nonghyup.com)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3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약 금액이 3만원으로 은이 99.9% 함유된 프루프(proof)급 은화로서 크기(지름)는 32mm, 무게는 14g이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오는 16일 기념주화의 공식 실물공개 행사를 광주시청에서 연다.

기념주화의 앞면은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을 가르며'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역동적인 수영선수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뒷면은 슬로건인 'DIVE INTO PEACE'와 대회 로고를 담았다.

해의 배정된 1000장도 같은 기간 해외 판매망을 통해 예약 신청을 받아 판매한다. 공식발행일은 7월 3일이며, 사전 접수자는 7월 11일부터 예약 접수한 금용기관에서 방문 수령하거나 우편 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오는 16일 기념주화의 공식 실물공개 행사를 광주시청에서 연다. 기념주화의 앞면은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을 가르며'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역동적인 수영선수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뒷면은 슬로건인 'DIVE INTO PEACE'와 대회 로고를 담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재선정'

인권·휴머니즘 공동체 가치 부여 등 높이 평가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재선정' 됐다.

광주는 지난 2014년 지정 후 첫 평가 심사에서 '매우 만족' 점수로 재선정되면서 향후 진행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기다려온 광주시는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우수 평가'란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화적 창의적 자산을 활용한 지속적 도시발전의 도모'를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 점을 비롯해 광주의 미디어아트 발전을 위한 전략과 구조적 접근, 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에 가입해 지역 내 또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다진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네스코 측은 미디어아트에 인



권, 휴머니즘 같은 공동체 가치를 부여한 점,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미디어아트 플랫폼 6개 공간)과 같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인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번 평가결과를 접한 광주시는 "시민의 문화적 향유와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디어아트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융복합 미디어아트 작품을 위해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 등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창의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창의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박차를 기울일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 선정, 2021년 인허가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복합시설 조성하고 함께 광주역 주변 50만㎡ 부지에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문화산업 경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임찬혁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쇠퇴한 광주역을 광주시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광주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전남 동부지역 기업 경영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지역 기업의 기 살리기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콩과 갖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두부과자를 생산하는 여수의 (주)쿠키아와 강관과 배관 지지물 등을 생산하는 광양의 성화산업(주)의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주)쿠키아는 지난 2018년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생산성 150%, 고용 53%, 매출 72%가 늘어나는 등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스마트공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역점 추진중인 사업이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무단 노출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일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상 주의 4건, 신분상 주의 4건·훈계 25건 등의 조치를 했다.

광주시 정보공개 담당 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4건의 청구인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노출됐다.

5·18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소방 구급활동일지 등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공개하면서 5·18 유공자, 구급 신고인의 신원이 드러났다.

광주시와 동구·서구·북구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2015~2018년 민원 검토 결과 24건을 공개하면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도록 했다. 광주시는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생 72명의 성명, 전화번호, 부서, 직급 등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기념주화(사진) 사전 예약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지정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후 예약금과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예약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www.wooribank.com)이나 농협은행(banking.nonghyup.com)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3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약 금액이 3만원으로 은이 99.9% 함유된 프루프(proof)급 은화로서 크기(지름)는 32mm, 무게는 14g이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오는 16일 기념주화의 공식 실물공개 행사를 광주시청에서 연다.

기념주화의 앞면은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을 가르며'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역동적인 수영선수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뒷면은 슬로건인 'DIVE INTO PEACE'와 대회 로고를 담았다.

해의 배정된 1000장도 같은 기간 해외 판매망을 통해 예약 신청을 받아 판매한다. 공식발행일은 7월 3일이며, 사전 접수자는 7월 11일부터 예약 접수한 금용기관에서 방문 수령하거나 우편 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오는 16일 기념주화의 공식 실물공개 행사를 광주시청에서 연다. 기념주화의 앞면은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을 가르며'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역동적인 수영선수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뒷면은 슬로건인 'DIVE INTO PEACE'와 대회 로고를 담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 선정, 2021년 인허가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복합시설 조성하고 함께 광주역 주변 50만㎡ 부지에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문화산업 경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